

### 순천, 청년정책 ‘천(天)개의 아이디어’ 이벤트

누구나 청년정책 만들 수 있는 기회 잡아라!

순천시 ‘만약 내가 순천 청년이라면?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를 주제로 ‘천(天)개의 아이디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순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지난달 1일에 오픈한 순천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 114’ (www.suncheon.go.kr/youth)의 ‘천(天)개의 아이디어’ 게시판에 19일부터 30일까지 문화와 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내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제

안자 1명에게 20만 원, 우수 제안자 1명에게 10만 원, 가장 많은 아이디어 제안자 1명에게 10만 원,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초 ‘청년정책 114’ 새소식에 게재 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061-749-3233)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된 아이디어는 정책 선호도 조사와 해당부서의 실행가능성 검토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된다. /순천=조순익 기자

### 곡성,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 교육 ‘호응’

지역 문화생활 경험... 도시민 유입 정책 일환 추진

곡성군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9가구 1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배 귀농귀촌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등을 견학해 최신 농업 기술과 농산물 가공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이후 축산,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사를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곡성 기차마을, 전통

시장, 폭발마켓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체험교육을 마친 수강생들 A씨는 “2박 3일 동안 곡성의 푸근한 인심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끼고 간다. 그저 막연했던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니 귀농귀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도시민들이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도농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곡성군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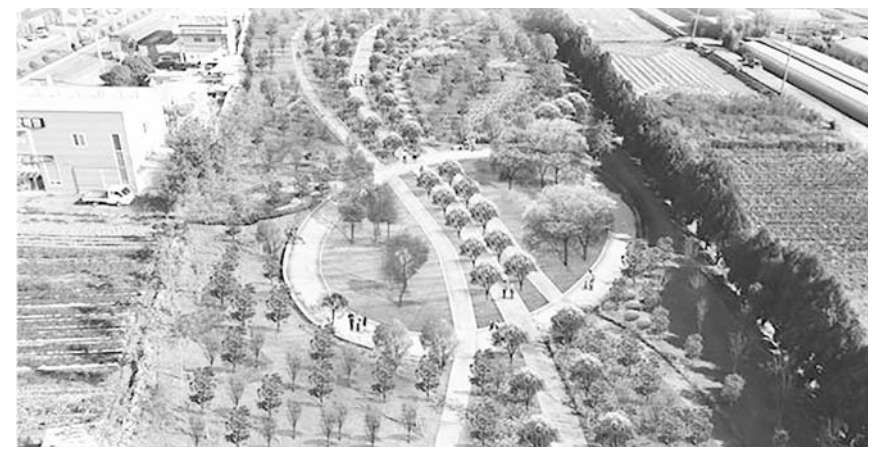
##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본격 추진

90억원 투입... 광양읍권 2개소·중마동권 6개소

‘산림의 찬 공기 도심까지 유입’ 탄소흡수원 확보

광양시는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열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차년도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 사업대상지는 열환경 분석 결과와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8개소로 광양읍권 2개소와 중마동권 6개소를 조성한다.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적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연결숲은 동천 유류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목성지구)과 동천 사이에 발생하는 유류지(사면)를 성토해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찬 공기 이동통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열환경이 매우 취약한 중마동권은 연결숲 2개소와 디딤·확산숲 4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한다. 연결숲 대상지는 찬 공기 생성숲인 가야산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중마동 양로와 구봉산·성황천의 찬공기를 도심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황천 주변 녹지공간을 활용해 조성할 계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감도.

획이다. 연결숲을 통해 유입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확산하고, 소규모 찬 공기를 생성하기 위한 대면적의 마동근린공원, 와우공원(2개소), 눈소공원, 마동생태공원을 선정해 시민들이 쾌적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5개소(약 60억 원)는 발주 완료했으며, 3개소는 용역 추진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산림의 차고 신선한 바람이 도심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도시와 시민을 살리는 생명의 숲이 되도록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보성·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북부농협, 물품 후원 업무협약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매년 쌀 후원... 나눔문화 확산

보성군은 19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 북부농협과 지역자원 물품 후원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은 매년 쌀(10kg 100포, 매달 저소득층 2가정에 1포(10kg)씩을 후원할 예정이며, 북부농협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쌀(10kg) 100포씩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별도 협의의 시까지 지속되며, 보성군은 매년 관내 도움

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선정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후원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과 북부농협에서 보성군 관내 어려운 이웃분들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성군과 더 끈끈한 상호협력·교류를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 연구 주지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보성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부처님의 지비와 사



보성 북부농협 채희정 조합장은 “오늘만이 아닌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보성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만 연안 해양쓰레기 22톤 수거 환경정화 활동

순천시는 금어기에 대비해 지역주민, 어업인,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480명이 함께 순천만 해안가 일대의 해양쓰레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순천시 11개 어촌계에서 매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어기(6월 20일 ~ 8월 20일)에 대비하여 해룡면에서 별량면 일대의 해안가, 해안도로 등에 산재되어 있는 폐어구와 각종 쓰레기 약 22톤을 수거하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 구례,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구례군은 농지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지역으로 주민들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군에서는 6월부터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감염병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은 증가했다고 한다. 군은 그 이유를 코로노아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제한되어 교육에 따른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입

는 옷과 모자, 장화, 토시, 앞치마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올바른 의복 착용 방법과 보조 도구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또한 찌꺼기무시증 감염 경향이 있는 주민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져져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화성산 주차장, 피아골 등산로 입구, 봉성산 산책로 입구, 서시천 입구, 대나무숲길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며 “아외활동 시 해충 기피제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 마을을 더 늘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착한가격업소 재지정·신규 모집

광양시는 오는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를 하여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 영입장 청결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주최 산림청 전남남도 순천시 주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2023.4.1.~10.31.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에서 놀아요!

**이전 방문**  
순천만 국가정원을 미디어 조형 연출로 정원이 살아 움직인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형 체험지점**  
체험지와 동천을 6~9시 정점으로, 국가정원과 연결됩니다.

**그린데이**  
체험지와 동천만 단행된 공간을 녹지로 조성, 시민들이 살고 정원이 거꾸로 열린다.

**순천만 한달살기(가이딩)**  
순천만 한달살기 4.5~6월 연방으로 일하면서 숙박과 임대료를 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스테이**  
정원의 역사, 문화, 음식, 전통, 건강, 향유가 이루어진 신개념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의: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 순천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업무협약

수목원·정원 산업 활성화·공동연구 협력

순천대학교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원·정원 산업 활성화와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및 산업화 역량 공동 활용하여 수목원·정원 산업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목원·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사업 발굴 및 공동 협력 △자생식물 산업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술·인적 교류 △상호 보유 교육 및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추진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확산과 사업 다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대 이병문 총장은 “국가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향후 대학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